

2025년 변리사 62회 1차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 총평

- 변리사 스쿨 장병선-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자연과학개론 지구과학 문제는 늘 그래왔듯이 최근 20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했던 분들,은 충분히 9문제 이상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의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강의 중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최근 2년간에 비해 이번 시험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림자료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지구과학 문제에 그림이 너무 없어서 변리사 스쿨 지구과학 강의에서는 예상문제 풀이나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도 그림이 나오는 문제를 비교적 많이 다루었던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이번 62회 지구과학에서는 표가 나오는 문제 1개, 그림이 나오는 문제가 5개로 평년에 비해 그림 자료가 상당히 많이 실려, 제 강의가 바람직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자평을 해보기도 합니다.

10문제 중 고체 지구 파트가 역시나 5문제가 출제되었고, 난이도는 무난했다고 봅니다. 35번 지층의 연대를 파악해서 지질시대, 표준화석과 연계된 문제 정도가 여러 개념이 복합된 문제였다는 것 정도가 조금 까다롭게 보입니다.

대기과학 쪽에서는 36번 지상풍 문제와 38번 대기 안정도에 관한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역시 문제 풀이 강의에서 여러 차례 다루어서 충분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문학 쪽에서는 37번 달의 위상, 40번 태양의 남중고도 구하는 정도가 어렵지 않게 나왔고, 지구 일반에서도 39번 지구의 크기를 구하는 식을 유도하는 간단한 개념이 출제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시험 역시, 제가 개념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지구과학을 대하는 넓고 얕은 지식(지대넓얕)”이 반영된 전형적인 시험이었던 것으로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연과학 과목에 비해 지구과학은 너무 깊게 공부하시는 것, 그닥 추천하지 않으며, 그 수준은 “개념강의”와 “기출 분석 강의”, 그리고 “예상 문제 풀이 강의”면 충분하다는 것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던 시험이라고 총평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좋은 결과 바랍니다!